



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의 노동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안 발표**

*7가지 방면의 이니셔티브는 지역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직업과 직업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차세대 뉴욕 노동력을 채용하기 위해 뉴욕의 인력 개발 정책을
전면 개편합니다.*

*뉴욕을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국가 모델로 세우고 모든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2년 주정부의 시정의 일환으로 뉴욕의 노동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7가지 방면의 이니셔티브는 지역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직업 서비스와 미래의 직업에 대한 접근성을 창출 및 확장하고, 미래의 인력을 구축할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인력 개발에 대한 뉴욕시의 접근 방식을 재정 의하고 재정비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며, 더 강하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뉴욕 시민들과 고용을 연결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지역 파트너들과 직접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특정 지역, 업계 또는 직원의 요구에 가장 잘 맞도록 솔루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노동력은 팬데믹 침체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가을, 뉴욕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했고, 일부 지표에서는 다른 어떤 주보다도 높았습니다. 일부 수요가 많은 산업의 고용주는 공석이 충원된 반면, 일부 필수 부문의 고용주들은 최고의 인재를 유지하고 채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자리 기회를 앞당기고 주 전역에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노동력 개발에 대한 주정부의 접근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뉴욕 시민들이 미래의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직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에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주정부의 인력 개발 노력을 점검하고 지역별 요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인력경제개발처 설립

노동자와 기업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지역 경제 간의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노동경제개발청을 신설하여 주 전역에 걸쳐 인력 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가 관리하고 노동부, 뉴욕주립 대학교 및 뉴욕시립 대학교와 함께 지역 경제 개발 협의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를 통해 관리되는 이 새로운 사무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와 주 전역의 고용주 간의 관계를 활용하고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고용주의 요구 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뉴욕 주민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각 REDC는 변화하는 요구를 유연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연간 자금 조달 주기가 아닌) 실시간, 지속적인 기준으로 인력 개발 자금을 결정하여 지역적으로 중요한 산업을 위한 신규 인력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민자에게 진로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민자 사무국(Office of New Americans)의 성공적인 인력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입니다.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교육과 직업 사이를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Hochul 주지사는 뉴욕 시민들이 교육과 진로를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해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 효율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부모와 실직한 근로자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함, 75,000명의 학생 지원
- CUNY 및 SUNY에서 비학위 인력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제공
- 민관 협력 관계를 개발하여 SUNY 및 CUNY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인턴십 기회 조성
- 업무 경험이 학위 학점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수립
- 학점 달성 및 입학에 대한 동시 등록 프로그램 장려

견습생에 대한 액세스 권한 확대

등록된 견습생 제도는 경제적 이동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모든 뉴욕 시민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주정부에는 975개의 등록된 견습 프로그램에 18,400명에 가까운 견습생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IT, 의료, 첨단 제조와 같은 고성장 분야의 프로그램 중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흥 분야의 견습생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Hochul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SUNY와 CUNY의 견습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 엠파이어 스테이트 견습생 제도 세액 공제(Empire State Apprenticeship Tax Credit)를 확대하고 소외된 청년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 여성, 유색인종 등 소외된 그룹을 대상으로 고성장 산업의 견습생 지원
-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는 사전 예약 포털 조성
- 사전 승인을 지원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직접 진입 사전 승인 지원
- 대학 저축 계좌(529개)에서 유자격 견습생 비용을 지출하도록 허용

차세대 공무원 채용

향후 5년 이내에 퇴직할 주 노동력 인구는 4분의 1 이상이므로, 뉴욕은 봉사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계속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고의 인재들이 공직에 들어설 수 있도록 유치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다양한 신규 인재의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주정부 인력으로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 시험에 대한 접근성 확대:** 학생과 구직자가 자신의 지역사회 내에서 시험을 쉽게 치르고 다양한 인구에 대한 채용 및 취업 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주 전역의 지정된 SUNY 대학 캠퍼스에 새로운 공무원 시험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다양한 채용 장려:** 국가기관이 가장 우수하고 총명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Hochul 주지사는 다양한 자격을 갖춘 공직자 채용을 가속화하고 채용 관행을 효율화하는 공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 시험의 무결성 유지:** 공무원 시험부는 공무원 시험이 청렴과 형평성의 최고 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정부의 기술 인재 파이프라인 확대

매일 뉴욕 시민들은 점점 더 많은 디지털 정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 이후 가속화된 추세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구축, 제공 및 개선하기 위한 기술 인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인턴십, 펠로우십, 중간 경력 기회 등을 통해 정부 서비스에서 기술 역할에 대한 노출도를 높여 기술 인재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엑셀시어 서비스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수립:** 이 이니셔티브는 역사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배경을 포함하여 뉴욕 전역의 학교에서 지원자를 모집하여 졸업생들에게 학교 졸업 후 바로 2년 동안 공직에 취업할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새 디지털 SWAT 팀 구성:** 이 프로그램은 중간 경력 기술자에게 뉴욕 시민을 위한 양질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정부의 역량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18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모델로 구축

최근 몇 년 동안, 장애를 가진 근로 연령의 뉴욕 시민들 중 약 3분의 1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38위를 기록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러한 분야에서 뉴욕을 국가 리더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성장 지역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최고 장애 책임자 사무국(Office of the Chief Disability Officer) 설립:** Hochul 주지사는 장애인의 욕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이 주의 시민에게 부여되고 장애인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고 장애 책임자 사무국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장애인이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여러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최고 장애 책임자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고용 권고를 해야 합니다.
 -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전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툴킷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이러한 역할을 찾는 데 있어 근로자가 직면하는 장벽을 줄임
 - 연방 및 주정부 세액 공제 활용
 - 2015년 고용 제일주의 권고 사항 업데이트
 - 성인 보호 및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직업 재활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존 교육 및 고용 프로그램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파악
 - 뉴욕주 시각장애인 비즈니스 기업 프로그램 확대
- **뉴욕 주 정부가 모범 고용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 Hochul 주지사는 뉴욕의 공공 부문에서 고용되는 장애를 가진 다른 주들이 본보기가 되고 노동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주정부가 비경쟁 계층에서 최대 1,200개의 직위와 자격을 갖춘 장애인 및 자격을 갖춘 전시 참전용사에 의해 채워질 최대 500개의 직위를 지정하도록 승인하는 **Civil Service 55 b/c**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주정부 기관 및 노동 조합과 협력하도록 주정부 공무원부에 청구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55-b, 55-c** 프로그램에 속한 비경쟁 직원이 경쟁시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경쟁직으로 전환하여 보다 신속한 경력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국가 기관들은 장애인 개인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입니다.

- **뉴욕 고용 서비스 시스템 개선** 이 이니셔티브는 장애 하위 유형 또는 주정부 기관의 소속에 관계없이 고용 서비스 시스템 전체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신 건강 사무국(Office of Mental Health)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간의 공유한 파트너십인 뉴욕 고용 서비스 시스템(New York Employment Services System)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

우리 주의 경제 성장과 회복이 모든 노동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Hochul 주지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업무 능력을 제한하는 반 협약:**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중간 임금 이하의 근로자를 위한 비경쟁적 협정을 없애고 주 독점금지법에 따라 모든 '포치 금지(no-poach)' 협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임금 절도를 저지른 고용주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Hochul 주지사는 임금 절도가 절도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해 임금 착취를 자행하는 고용주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절도의 다른 형태에 대한 처벌과 긴밀히 연계하여 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 **근로자가 오늘날의 노동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제출하는 방법 현대화:** 노동부(State Department of Labor)는 임금 체불, 차별, 국가에서 의무화한 휴가 미제공, 기타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해 노동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할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